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

축 사



2021. 12. 10.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여러분!

세계인권선언 채택 73주년과 국가인권위원회 창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주권 국가들이 모인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류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합의한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인도주의의
위기를 초래하였던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제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공동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인류의 반성과 깨달음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향한 역사적 이정표이자,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소중한 기본 틀이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지향점은 1945년 국제연합 창설 이후 현재의 국제질서를 형성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이를 구체화해 온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범들을 나라 안에서 더욱 잘 실현하기 위하여,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바탕에는, 공권력에 의한 과거의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여러 해 동안에 걸친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법령과 제도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연구와 개선 의견 등을 통하여, 차별 취급과 인권침해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하여 왔습니다.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소한의 인권 보장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최대한의 인권보장을 앞서서 이끌어 내는, 신뢰받는 인권보장 기관으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위상에 걸맞게 모두의 인권 의식이 성숙한 대한민국을 가꾸어 나가는 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규범들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그 침해를 구제함으로써, 국가인권
위원회가 가는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과 국가인권위원회 창설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